

<IPS 외국환중개 2016년 9월 12일 시황>

http://www.ipscorp.co.kr/24_IrProducts.asp

1.글로벌 채권

- * <뉴욕 채권> 국채가, FOMC 투표위원 매파적 발언에 하락
- 보스턴 연은 총재 '최근 경제지표 고려시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리인상 너무 늦추면 부동산 시장 등 일부 자산시장 과열 우려 있다
- 10년만기 국채 수익률 1.67%...브렉시트 투표 (6/23일) 이후 최고치
- 獨 국채, 전날 ECB 실망감 여파로 6월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영역 들어섬

[미국]

2y 0.78% (+1.2bp)
 10y 1.67% (+7.6bp)
 30y 2.39% (+9.1bp)

[기타 10Y물]

영국 0.86% (+10.1bp)
 독일 0.01% (+7.3bp)
 프랑스 0.30% (+7.8bp)
 이탈리아 1.25% (+9.4bp)
 스페인 1.08% (+9.5bp)
 그리스 8.12% (+4.9bp)

2.글로벌 증시

- * <뉴욕 마감> 연준 위원 금리인상 지지 여파에 큰 폭으로 하락
- 연준위원들,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발언...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취지
 대니얼 타블로 연준 이사 '금리 인상에 앞서 지속적인 물가상승 이어질 것이라는 추가적인 확신 필요'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은 열어둬
 델러스 연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 근거는 강화 되었지만 인상 시급한것 아냐'
- 증시 큰폭 하락하며 '공포지수' 급등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 17.50 (+39.89%)
-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 보잉과 캐터필러, 코카콜라 3% 넘게 하락... 30개 종목 모두 하락 마감

* <유럽 마감> 美 금리인상 우려 & ECB 실망감 지속에 하락

* <상하이 마감> PPI 하락세 개선에도 하락 마감

중국-8월 PPI(YoY) -1.7%→ -0.8% (예상:-0.9%)

...마켓, 인민은행 추가 부양책 나설 필요 줄어들었던 분석

...인민은행의 유동성 회수 & 위안화 절하도 하락 요인

* <도쿄 마감> 北 핵실험 악재 속 혼조 마감

DOW30	18085.45	(-2.13%)
NASDAQ	5125.91	(-2.54%)
S&P500	2127.81	(-2.45%)
NIKKEI225	16965.76	(+0.04%)
SHANGHAI	3078.85	(-0.55%)
FTSE100	6776.95	(-1.19%)
DAX30	10573.44	(-0.95%)
CAC40	4491.40	(-1.12%)

3.글로벌 환시

*달러화,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 확산에 상승

유로/달러	1.1231	(-0.0028)
유로/엔	115.33	(-0.06)
달러/엔	102.70	(+0.23)
달러/위안	6.6684	(+0.0064)
파운드/달러	1.32650	(-0.00292)
NDF	1109.00 / 1109.50원...10.50원 상승	

4.글로벌 상품

* <국제 유가> 달러강세 & 美 원유채굴장비수 증가에 급락

* <국제 금값> 연내 금리인상 전망 강화에 하락

WTI	45.88	(-3.7%)
COMEX금	1334.50	(-0.50%)

5. 전일 국내 지표

코스피	2037.87 (-1.25%)
코스닥	664.99 (-0.36%)
원/달러	1098.40 (+5.80)
KTB	110.68 (-0.15)
LKTB	132.22 (-0.57)

6. 전일 국내 주요 금리

- * 금통위, 1.25%로 석 달째 금리동결...가계부채 부담
- * 국고채 금리, 상승 마감. 글로벌 금리 상승에다 9월 금통위가 매파적으로 해석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희석됨.
- 미국 금리 상승에 약세로 출발. 장 초반 북한의 5차 핵실험 소식에도 별다른 영향 없이 기준금리 결정 대기
- 만장일치 동결 예상이 많았기 때문에 동결 발표에도 채권금리 약세폭이 커지지는 않음
- 이주열 한은 총재, 美 금리인상이 한국 장기금리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 기준금리 하한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
- 오후 들어 외인이 3년, 10년 국채선물 매도 규모를 늘림. 특히 10년 국채선물은 9천계약 가까운 매도를 나타내면서 약세 흐름 주도...외인 국채선물 역대 2번째 순매도

3y	1.328%	(+4.0bp)
5y	1.376%	(+4.9bp)
10y	1.512%	(+4.3bp)
CD	1.340%	(0.0bp)

7. 본드-스왑 스프레드

3y	-5.3bp	(0.0bp)
5y	-8.6bp	(-0.2bp)
10y	-16.5bp	(+1.0bp)

8. IRS/CRS 동향

* IRS, 국채선물 약세 영향으로 상승 마감. 기준금리 동결에도 큰 영향은 없었으나 국채선물의 약세 폭이 커지면서 IRS 금리도 상승

* CRS 금리도 소폭 상승. IRS에 비하면 그다지 변동이 없는 분위기

*IRS 금리

1Y	1.2850%	(+2.25bp)
2Y	1.2725%	(+3.25bp)
3Y	1.2750%	(+4.00bp)
5Y	1.2900%	(+4.75bp)
7Y	1.3000%	(+5.00bp)
10Y	1.3475%	(+5.25bp)

1*2Y	-1.25	(+1.00bp)
2*3Y	0.25	(+0.75bp)
2*5Y	1.75	(+1.50bp)
3*5Y	1.50	(+0.75bp)
5*7Y	1.00	(+0.25bp)
5*10Y	5.75	(+0.50bp)

*CRS 금리

1Y	1.1900%	(+2.00bp)
2Y	1.1100%	(+2.00bp)
3Y	1.0900%	(+2.00bp)
5Y	1.0350%	(+2.00bp)
7Y	0.9900%	(+1.50bp)
10Y	0.9800%	(+1.00bp)

9. 주요뉴스

[해외]

* BOJ 구로다, 7개월만에 아베와 회동...'통화정책 논의 없었다'

* 미국 7월 도매재고 0.3% -> 0.0% (예상:0.1%)

* 北 5차 핵실험 강행... 전반적 투자 심리 위축시키는데 일조

[국내]

* 이주열 "美금리 올리면 장기금리 급등 우려"

- "환율변동성 확대 유의해서 보고있다"

* 유일호 "北 도발에 변동성 확대 가능성...비상대응"

주간 예정 지표

9월 12일

[데니스 록하트 연은 총재 연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설]

일본-8월 PPI(YoY) (예상:-3.5%, 이전:-3.9%)

9월 13일

중국-8월 산업생산(YoY) (예상:6.1%, 이전:6.0%)

-8월 소매판매(YoY) (예상:10.3%, 이전:10.2%)

독일-8월 CPI(MoM) (예상:0.0%, 이전:0.0%)

-9월 ZEW 경기기대지수 (예상:2.5, 이전:0.5)

영국-8월 CPI(YoY) (예상:0.7%, 이전:0.6%)

한국-8월 수출물가지수(YoY) (이전:-7.5%)

-8월 수입물가지수(YoY) (이전:-7.1%)

-8월 실업률 (이전:3.6%)

9월 14일

- 미국-8월 수출물가지수(MoM) (예상:0.1%, 이전:0.2%)
 - 8월 수입물가지수(MoM) (예상:-0.1%, 이전:0.1%)
- 유로존-7월 산업생산(MoM) (예상:-0.9%, 이전:0.6%)
- 영국-7월 평균임금지수 (예상:2.1%, 이전:2.4%)
 - 7월 실업률 (예상:4.9%, 이전:4.9%)
- 일본-7월 산업생산

9월 15일

[BOE 기준금리 결정]

- 미국-8월 PPI(MoM) (예상:0.1%, 이전:-0.4%)
 - 8월 근원 소매판매 (예상:0.2%, 이전:-0.3%)
 - 8월 소매판매 (예상:0.1%, 이전:0.0%)
 - 9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예상:-1.00, 이전:-4.21)
 - 8월 산업생산(MoM) (예상:-0.3%, 이전:0.7%)
 - 7월 기업재고(MoM) (예상:0.1%, 이전:0.2%)
- 영국-8월 소매판매(MoM) (예상:-0.4%, 이전:1.4%)
- 유로존-8월 CPI(YoY) (예상:0.2%, 이전:0.2%)
 - 7월 무역수지 (예상:26.5B, 이전:29.2B)

9월 16일

[EU 정상회담]

- 미국-8월 근원 CPI(MoM) (예상:0.2%, 이전:0.1%)
 - 8월 CPI(MoM) (예상:0.1%, 이전:0.0%)
- 한국-8월 수출(YoY) (이전:2.6%)
 - 8월 수입(YoY) (이전:0.1%)
 - 8월 무역수지 (이전:5.30B)